

3대리구 대명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3주일 2022. 09. 04. (다해) 제2338호

제1독서 지혜 9,13-18 **화답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2독서** 필레 9 L-10.12-1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4,25-33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배운 대로 살아라



들꽃마을 민들레공동체 원장 | 이병훈 요한 신부

『소학(小學)』의 첫 문장은 “쇄소응대, 초학입덕지문(灑掃應對, 初學入德之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 뿌리고 마당 쓸고 부모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응하는 것이 배움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학교의 일상도 말 그대로 쇄소응대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당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매일 하다 보면 어느새 일반인의 삶에서 신학생의 삶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제서품을 받고 몇 년 후에 신학교 학장이셨던 김경식 보니파시오 몬시뇰의 병환 소식을 듣고 동기 신부와 함께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너무 아프셔서 말하기도 힘드신 상태였는데도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다. 잠시라도 즐거움을 드리고자 신학교의 작은 일들을 전해 드렸습니다. 나오기 전에 같이 간 신부가 “저희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청했더니 그분 특유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잘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치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라고 다시 여쭙었더니 “배운 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라고 말씀드리고 병문안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몬시뇰께서는 그 말씀을 어린 후배 신부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시고 며칠 후 돌아가셨습니다.

사제서품을 받은 후 19년 동안 사회복지의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살아왔지만, 배운 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세상에서 적응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만 쌓여갑니다.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듯한 사회복지의 환경에서 버티는 것도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가 보니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길을 찾기도 힘겨운데,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는 비유를 들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뿔을 놓아서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임금이 주는 평화협정으로 해결하는 것...’ 즉, 내 것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느님의 것을 가지려고 할 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 자기 즐거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생명, 하느님이 주시는 삶을 가지려고 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는 신학교 입학 때부터 매일 ‘쇄소응대’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몬시뇰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울립니다.

“배운 대로 살아라.” **필문**

나누는 기쁨, 나눔공간 이야기

중리성당 공간지기 | 정정순 소피아

‘나눔공간’은 가톨릭 신앙인들이 지역의 모든 이웃과 자유롭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나누는 무료가게입니다. 중리성당은 2021년 여름, 성당 안 카페 공간에 나눔공간을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자들과 지인들에게 후원받은 물품을 진열하고 어려운 이웃 누구나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게 홍보했지만, 코로나 때문인지 방문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눔공간을 열어놓고 누군가 찾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 위원들이 나서서 물품을 들고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해 추천받은 8명의 초등학생, 중학생과도 꾸준히 물품을 나누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단체와 연결되어 소년 가장,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으로 나누는 이웃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시작한 나눔공간이 본당,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눔공간 활동이 점점 입소문이 나니 신자들이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를 가져다주기도 하고, 반찬가게 자매님은 혼자 사는 어르신께 전해 달라며 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 미용봉사를 하고 싶다는 자매님도 있었습니다. 재능기부와 함께 물품을 지원하는 도움의 손길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며 3명의 학생에게 물품을 나누며 만남을 이어가던 자매님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부모들과도 친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과 함께 진로 상



담을 하고, 영어학습을 도와줄 공부방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매님은 아이의 성적이 올랐다는 소식에 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나눔으로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하느님 곁으로 다가오는 이웃도 생겼습니다. 나눔활동이 감사하다며 교리반을 찾아와 세례를 받는 자매님, 냉담 중이었는데 자녀와 함께 성당에 오고 싶다는 첫영성체 교리반에 등록해 부모교리를 받는 자매님을 비롯해 많은 분이 나눔공간을 계기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눔공간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실천은 처음부터 아주 대단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눔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하느님 안에서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문**

<밀알회>는 대구대교구 공식 사회복지 후원회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숙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위한 복지사업과 교구 소속 10개 법인의 100여 개 시설과 본당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기 후원자 가입 문의: 053)422-3411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 서광호 베네딕도 신부

이번 주간 봉사자 명단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한숨이 나온다. 수도원은 갖가지 원내 중요한 임무들을 주간별로 배정한다. 크게 성당과 식당으로 나누어 복사, 독서, 청원기도, 식당 봉사, 식당 독서로 공동체에 필요한 필수 봉사를 한 주간 담당하여 물 흐르듯이 생활하고 있다. 수도원을 찾는 손님들을 그리스도처럼 환대하라는 영성이지만 환대하러 나갈 사람이 적어진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가뜩이나 책임진 업무도 바쁜데, 자주 돌아오는 주간 봉사를 귀찮게 여기려는 나약한 본성은 불평의 한숨을 입 밖으로 새어 나오게 한다.

이처럼 불평의 악습이 고개를 들 때, 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한다. 일단 시간을 버는 것이다. 불편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흠어진 이성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동시에 믿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함이다. 수도자들 모두가 어린 양의 양순함을 닦기 위해 여기 왔지, 결코 염소처럼 불편하게 칭얼거리며 자신이 섬김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제 자리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기꺼이 실천하며 생활하고 있다. 내 시야가 거기까지 닿지 못할 뿐이다. 머릿속에 불평이 시작되면 내면은 이미 감정의 바다가 세차게 출렁인다. 근래에 들어서야 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호령이 가슴에 와닿는다.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마르 4,39) 그래,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과 줄행랑을 미리 내다보고서도 다음과 같

은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셨다. “나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이다.”(요한 12,27) 그분은 우리 가운데 시종드는 이와 같은 자리에 계셨다. 그저 낮은 자리에 계시길 원하시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계신다. 봉사가 비어 있는 자리에 나를 초대하신 그분 손길을 두고 불평부터 터뜨리는 내 약한 본성은 얼마나 더 정화되어야 하는 걸까. 그분은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고 돌아선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서비스’를 완성하셨다. 자기를 다스려 스스로 낮은 곳에 내려간 왕 다운 면모를 잃지 않으시고, 대사제로써 하느님께 봉헌할 ‘희생과 봉사’를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제 ‘어린 양’을 뒤따르는 ‘다 큰 양’들이 세상을 향한 크고 작은 희생과 봉사로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예언자답게 선포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섬김과 봉사의 때를 위해 온 것이다.

베네딕도회 수도공동체는 ‘섬김의 학원’이다. 우리는 다투어 섬기는 삶에 있어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들이다. 사실 봉사의 자리가 빈 적도 없지만, 부득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될 때 누군가 재빠르게 채워준다. 그러니 세속살이보다 더 평화롭고 거룩한 수도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던가. 이러한 소소한 섬김의 일상을 통해 차츰 정화되고 정진한다. 이제 헛된 한숨은 거두고 섬김의 은총, 그 “깊은 데로 나아가”(루카 5,4) 풍덩 빠져보려다. **▶▶▶**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2년

선교사들의 동정(動靜)

5월 20일 월요일

샤르즈뵈프 신부가 파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와게 신부는 병으로 출발이 연기되었다.

5월 25일 토요일

오늘부터 실시되는 교구지도서를 공포하는 회람을 보냈다.

5월 26일 성신강림주일

한국인 신부들의 피정이 끝났다. 리넵 신부가 청년들과 여교우에게 강연을 했다. 하코다테(函館)의 위트(Hutt) 신부가 저녁에 도착했다.

5월 28일 화요일

수류(水流)로 자기 물건을 찾으러 갔던 투르뇌 신부가 오늘 도착했다.

5월 29일 수요일

투르뇌 신부가 가실(佳室)로 떠났다. 자신의 후임이 될 그에게 인수인계를 위해 소세 신부가 그를 동행했다. 소세 신부는 결정적으로 대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의 물건을 대구로 가져올 것이다.

5월 30일 목요일

본당의 학생들이 소풍을 갔다. 나도 위트, 무세, 김 요셉[金紋玉] 신부 등과 함께 갔다. 저녁 8시에 돌아왔다.

6월 1일 토요일

나는 오늘 아침에 가장 학업이 앞선 우리의 신학생 주 바오로[朱在用]에게 삭발례를 주었고, 그는 그 때문에 어제 용산에서 왔다. 나는 이 의식으로써 꼭 표명을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만약 대구교구를 구성하는 남부지방에서 사제성소를 위한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라면, 우리의 적은 신학생들 중에서 가장 학업이 앞선 학생이 삭발례자 밖에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6월 3일 월요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나는 나바위에서 나의 피정을 했다. 나는 위트 신부를 데리고 갔었다. 그는 인근의 일본인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었다. 부주교(베르모렐 신부)의 집으로 나를 만나러 왔던 베르몽 신부가 지쳐서 왔다. 그 피로가 커지기만 해서 그를 대구로 데리고 왔다.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 특별 초대전

2022.9.1.(목)~9.30.(금)

예담갤러리 (백합식품 판매소 2층)

OPEN 10:00 am - CLOSE 4:30 pm | 목 휴관

문의 | 샬트르성바로수녀회대구관구 예담갤러리 053-659-3384



앞산밀 북카페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의 유지를 이어가는 '앞산밀 북카페'는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인문학 공부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발전시키려는 문화공간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강 : 9월 14일 (수)

강좌 :

요일 및 시간	담당	내용	비고
월 10:30	박용욱 신부	그리스도교와 시각예술	
화 10:30	최성준 신부	동양철학의 이해	
수 10:30	이 크레센시아 수녀	나부터 시작하는 생태적 회심	생태 학교
수 14:30	유 클라라 수녀	오후의 영화 산책	영화 상영



장소 : 앞산밀 북카페 4층 (영화 상영은 3층)

문의 : 앞산밀 북카페 053-622-1900

*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내가 머무는 공간에 불필요한 물건 정리하고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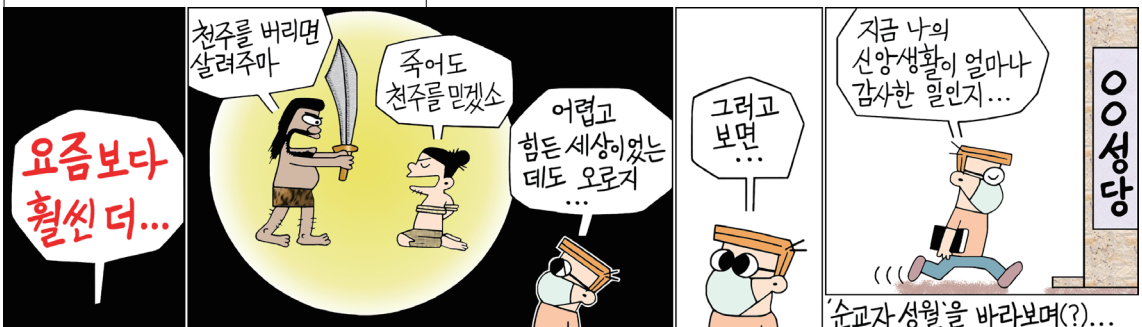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86호 정답

1. 씨앗 2. 은총 3. 회개 4. 성령, 하느님의 사랑, 자비

우리 또한 순교자들의 삶과 정신을

박성규 엘리시오



순교자 성월을 바라보며(?)...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5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5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9월 5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복음선교후원회 후원미사	9월 5일(월) 11:00 성모당	-	-

수도회 성소 | 피정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모임

일시: 상시

장소: 원하는 곳

문의: ofmkvocation@gmail.com

(010)7731-4521

돈보스코여자재속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

장소: svdb.creatorlink.net 참조

문의: (0507)1306-1505

707차 주일 성령묵상회 (주일 3회 과정)

일자: 9.18, 9.25, 10.2 (매주 주일)

시간: 9:30~18:30 / 비용: 12만원

장소: 성령봉사회관 (고령 월막피정의집)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8:40 출발

문의: (054)954-3091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날짜: 9.15~17 / 9.19~21 / 9.25~27

10.1~3 / 10.8~10 / 10.11~13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일자: 9.20~22 / 9.25~28 / 10.1~3

10.7~9 / 10.18~20 / 10.24~26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강우일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일시: 9.23~25, 10.18~20, 11.18~20

장소: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집, 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구역반장 피정 환영)

문의: (010)9670-9775 / (010)2231-2074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10.15~16 / 11.5~6

3박 4일: 9.30~10.3 / 11.10~13

8박 9일: 9.19~27 / 10.25~11.2

장소: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392차 ME주말: 10.28(금)~30(일)

쇄신주말: 10.15(토)~16(일)

(쇄신주말은 ME를 경험한 부부대상)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센벨 성서 모임 수강자 모집

개강: 9.5(월) 10:00 모세오경

9.6(화) 10:00 예언서

장소: 샬트르성마로수녀원(대명동)

문의: (010)5726-1733

생태·환경교육 프라이머(PRIMER)

피조물에 관한 복음과 생태적 생활 배우기

일시: 9.16~11.4 매주 금

10:00~12:00

장소: 바들로교육센터(수성구 파동로 32길)

문의: 783-9817 / (010)2889-3342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장례식장 새단장

유가족과 문상객들의 슬픔을 함께하며
친절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의: 650-4444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연말정산문의: 650-3529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제주·추자도 순례 모집
주중·주말 매주 출발

한국성지 167 완주
인천·의정부교구 11/14~17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헬스텍피아 보청기
HEALTHTECHP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 고성능, 최신행,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CaNa 가나혼인잔치

26년 전통 | 초혼, 재혼

전국 대표전화 1666-1077
대구 010-8880-0464
부산 051)817-3888 서울 02)3141-3888

mjms.co.kr 이경용(요셉)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4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NG'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박) |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남성형 | 코성형 | 안원센터빌딩 8층
필러, 보톡스 | 진료문의: 216-7345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경환(토마스) 몬시뇰
1999년 9월 10일

교구 | 대구구 알림

군위묘원 2차 관리비 납부 안내
2013.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
서는 묘원 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분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군위묘원 성묘 안내
추석 당일에는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전
후해서 성묘를 하여주시고, 묘주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구청 관
리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기 야간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일자: 9.15~10.27(매주 목, 7주)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모든 어머니
마감: 9.7(수)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미혼모돕기 생명사랑 나눔바자회
일자: 9.17(토)~19(월) 11:00~17:00
장소: 가톨릭여성교육관(카리타스카페 옆)
주관: 대구대교구 여성위원회

문의: 254-6115
다양한 공연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

3대리구 성경학교 수강생모집
대곡성당: 마태오, 마르코 (수 19:30)
월성성당: 모세오경 (목 14:30)
이곡성당: 마태오, 마르코 (목 14:30)
개강: 9.14(수)부터
문의: 641-5678

성주성당 사무장 채용 안내
자격: PC활용 가능자, 신앙생활 충실하신 분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054)933-3122

군위성당 사무장 채용 안내
교회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분을 찾습니다.
자격: PC가능자
서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마감: 9.20(화)
문의: (054)382-898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신앙여정, 서양화, 오카리나, 발성법,
난타, 고전무용, 장구,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프랑스자수,
사범꽃꽂이, 미술심리상담사, 칼림바,
포슬린 아트 / 신청: 254-6115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1 동부유럽 12일 385만원

11.7 로마, 파티마, 루르드, 스페인 12일 415만원
11.11 이탈리아 13일 495만원
12.2 이스라엘 9일 370만원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온라인 단과대학
'유스티노자주대학' 2023 수시모집**
전면 온라인 강의
3년 만에 졸업 및 전문자격증 취득
절반 수준 등록금에 다양한 장학금까지
입학상담: 850-2580

바오로딸 9월 신앙아카데미
일시: 9.17(토) 15:00~16:30
주제: 회칙 - 찬미받으소서
강사: 송영민 신부
신청문의: (010)6681-5185 (무료)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34기 원우 모집
입학식: 10.17(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비용: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마리아사제운동 9월 미사 안내
일시: 9.17(토) 10:00 삼덕성당
주차: 공용주차장 이용
문의: 평신도 대표, (010)9366-9170
이 운동은 교구장님께서 허락하신 영성운
동이며, 기도모임을 체나콜로라고 합니다.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이영국 비뇨기와
전립선 | 방광질환
요로결석 (쇄석술)
비뇨기과 전문의(원장) 이영국(안드레아)
T 053-629-0077
감삼역3번 출구 감삼스퀘어 6층

건강검진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안마바우처
대구 전지역 대환영
근골격계·신경계·자세교정
053)425-7695~6
38년 전통 약손 이 루카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천림병원 3층
청라언덕(산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용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정 앞 053-959-7175
010-9597-7175